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
Vol.2, No.2, p.117~124, December 1991

성공적 월동생활을 위한 인간적 요소

장순근

남극세종기지

Human Elements for Successful Overwintering

Soon-Keun CHANG

King Sejong Station
Korea Antarctic Research Station
King George Island, Punta Arenas, CHILE

요약 : 성공적인 월동생활을 위한 인간적 요소들을 정리했다.

극지생활은 문명세계와 연락이 어렵고, 단절된 작은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1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대원 자신이 기지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 인위적 변화를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기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특히 어려움에는 적극적으로 대처, 이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월동생활은 대원이 10-20명의 비교적 소집단이기는 하나, 공동생활이므로 타인을 의식하고 자신의 욕구나 습성을 자제하고 양보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극지생활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현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하기 힘든 자연적 · 인위적 어려움을 참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반면 천성적으로 공동생활을 싫어한다거나 사소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격적, 반항적, 충동적 성격은 월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만하거나 이기적인 성격과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책임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Abstract : This paper discusses the human elements for the successful overwintering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Antarctic Research Program.

Overwintering could be regarded as either wonderful or dull according to the personal mentality of participating members. However, it is evident that individual attitude toward wintering life apparently monotonous is the key to a successful overwintering. The following characters are required for a desirable overwintering:

– Curiosity as well as attention paid to everything occurred around in the station are very effective in decreasing dullness and monotony of wintering life. They also create pleasures and give refreshments to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wintering community;

– Positive way of thinking and resultant actions are helpful for the solution of unexpected hardships occurred in the community;

– Mental and physical endurances are also necessary in terms of nearly invariable shortage and unpreparedness in remote and harsh environments.

On the other hand, persons who do not like a collective life are not desirable for overwintering. The same statement is applied to the persons whose character are remarkably aggressive, impulsive, defiant, self-centered, or of no observance of regulations. Persons who lack a sense of responsibility are also not desirable.

서 론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종기지를 운영한지도 만 3년이 지나, 현재 대한민국 제4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연구대가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는 계속되리라 믿는다. 하계연구대인 경우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나, 월동연구대의 경우는 1년간을 세종기지에서 생활

해야 하므로 그의 인적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간의 경험과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 극지생활, 특히 월동생활에 필요한 인간적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세종기지에서의 월동근무의 신청과 대원의 인선 등에 참고가 되게 함으로써 월동대의 구성과 월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세종기지에서의 월동일별

1. 자연환경

세종기지의 자연환경은 1988년 2월~1991년 6월까지의 자료인 Table 1에서 보듯이, 연평균기온 -2.8℃에 최저기온이 -24.4℃, 연평균풍속 7~9m/s이다. 가을-겨울에 주로 부는 남극폭설풍으로 수 m 앞이 안보이며, 강한 풍속으로 파고드는 눈은 남극의 가혹한 자연환경을 실감케 한다.

2월 하순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지면이 결빙된다. 5월초만 되어도 낮이 현저히 짧아지고 물을 아껴서 써야 한다. 6월은 낮시간도 짧고 남극의 폭설풍이 가장 심해진다.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빠르면 4월말, 늦으면 5월말~6월초 또는 7월에는 바다가 결빙된다. 또 7~8월은 낮이 비교적 짧고 추위도 심하다. 8월초-하순에는 자연호수인 세종호가 결빙된 채 고갈된다. 9월말~10월초에는 남극의 봄이 시작되어 얼음과 눈이 녹기 시작하며, 새들이 돌아와 산란준비를 한다. 남극의 봄~여름에는 기상이 급격히 변하기는 하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이방용등, 1990 : 장순근 등, 1990b).

2. 월동대 구성과 업무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의 월동연구대는 대략 15

Table 1. Meteorological data and remarkable information from February 1988 to December 1991 at King Sejong Statio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기상자료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 균 (극대치)
기온 ℃	평균	2.3 ~ 1.5	2.7~ 0.8	-2.3~ -0.2	-1.1~ -4.8	-0.9~ -7.2	-2.0~ -7.6	-0.7~ -5.3	-2.1~ -8.4	-2.7~ -3.2	-0.6~ -2.6	-0.2~ -1.1	1.4~ 0.5	-2.8
	최고	8.9	7.5	8.9	5.8	5.1	4.4	4.5	4.5	6.1	8.4	7.9	10.4	(10.4)
	최저	-6.3	-4.7	-6.8	-18.3	-18.5	-21.7	-17.5	-24.4	-21.6	-10.4	-6.9	-5.2	(-24.4)
바람 m/s	평균	6.3~ 8.0	5.7~ 8.2	7.5~ -9.2	7.3~ 8.5	6.4~ 8.8	8.0~ 10.3	7.4~ 9.6	6.9~ 9.0	8.0~ 10.0	7.9~ 10.9	6.4~ 9.2	5.7~ 7.0	7.0~ 9.1
	풍향	N	N-NW	N-NW	N-E	ESE-NNW	NNW-E	N-E	E-W	N	E-NW	N-E	NW-N	
	최	38.0	33.7	45.2	33.4	37.7	46.6	36.9	36.9	30.6	36.0	33.8	43.3	(46.6)
	풍향	NNE	NNE	NNE	E	SE	NNE	ENE	NNE	ENE	SSE	NNE	NNE	(NNE)
기압 mb	평균	986.0~ 991.1	986.4~ 990.7	984.2~ 988.6	990.1~ 991.4	985.4~ 1002.5	983.1~ 994.3	990.3~ 994.8	979.8~ 992.2	990.2~ 992.4	976.6~ 999.8	972.2~ 983.3	982.7~ 990.5	983.9~ 992.6
	최고	1003	1012	1023	1016	1027	1024	1015	1023	1018	1025	1006	1006	(1027)
	최저	968	966	958	957	954	952	956	951	956	952	946	962	(946)
폭설풍			++	++	++++	+++	+++++	++	++	+	+++	+		
특기사항			지면결빙 (하순)		낮시간 11~8 시간	낮시간 8~6 현대소 고갈 바다결빙 (1991)	낮시간 5시간 (동지)	낮시간 5~7 바다결빙 (1988)	낮시간 7~10 세종호 고갈 바다결빙 (1990)		남극조류 귀환 호수만수 바다해빙		낮시간 20시간 (하지)	

명이내로 구성된다. 직종으로 구분하면 크게 연구직과 기술직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직은 대기과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생물학, 일본해양, 고층대기물리학으로나눌 수 있다. 기술직은 의료, 발전, 전기, 전자, 기계설비, 중장비, 통신, 조리 등과 기지의 생활물자 관리의 행정을 담당할 총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별로는 한국해양연구소와 기상청 및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며, 의료직은 보사부에서 파견한다. 그 외의 기술직은 연구소 인력이 지원하거나 공개채용해서 계약제로 근무한다. 대장, 총무, 기지유지반장은 한국해양연구소장이 임명하며, 부대장과 연구반장제도가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직의 임무는 대한민국 남극연구의 일환으로 주어진 전문 연구분야의 일상 및 특수관측과 기록, 연구재료 수집, 분석과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유지이다. 기술직의 임무는 연구직이 연구를 할 수 있고, 기술직 자신을 포함해서 월동대원의 일상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기지를 유지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기지유지 시설과 장비(통신기, 발전기, 송배전기기, 조리시설, 냉장고, 냉동고, 소각로, 보일러, 하수처리기, 해수담수화기, 각종 배관시설)와 차량(설상차, 다목적건설장비, 수륙양용차, 고무보트, 지프차, 개인용 설상차, 지게차)의 운행, 점검, 보수, 기록 및 건물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시설과 차량운영에 따르는 유류의 사용관리, 급수와 기지 쓰레기처리(소각 및/또는 포장)도 이들의 임무이다.

월동대원들이 2년 또는 그 이상의 연속월동을 한 적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험삼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월동생활

남극의 봄-여름-가을에는 야외생활이 가능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6월은 낮시간이 짧고 잦은 폭설풍으로 야외활동이 현저히 지장을 받는다.

기지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사무실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야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16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생각된다. 기지내에서의 공동생활과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정신자세는 월동생활의 긴장과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갈수록 긴장은 높아지고 이 긴장은 남극의 봄인 10-11월까지 계속된다. 기지에서는 당구, 바둑과 장기, 비데오와 TV, 음악, 전자게임, 자료실의 도서, 기타, 아코디온 등의 악기, 붓글씨등 휴게실이나 체련실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 탁구, 족구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오락은 비교적 오래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기상의 제한을 받는다.

현지(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 구매할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장류, 마른 반찬류 등의 식품과 주류, 기호품 등은 국내에서 구매, 수송하며, 그 외에 육류, 야채류, 과일류, 통조림류는 현지에서 구매, 공급한다. 1년에 2~3회 칠레공군기를 이용하여 야채와 과일등 식품류 위주로 중간 물자 공급을 한다. 따라서 식사와 기호품류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개의 극지생활이 그렇듯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조리사의 관심과 대원들의 협조로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우편물의 수발이 가능하고 칠레텔레비젼이 시청되어, 부족하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문명세계와 연락도 되고 있다.

월동생활의 어려움은 가혹한 자연환경보다는, 대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명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낯선 자연 및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과 가족과의 떨어진 외로운 생활이라는 점이다.

세종기지주변의 자연환경변화와 월동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1차 월동대(장순근 등, 1990a), 제2차 월동대(김예동 등, 1991) 및 제 3 차 월동대(양재삼 등, 1991)의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월동대원의 인간적 요소

월동대원의 바람직한 인간요소는 관심, 적극적인 성격, 공동생활에 대한 마음가짐과 인내 및 이해 그

리고 기타 부수되는 요소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호기심이 있으면 매사가 신기하고 새로워 관심을 갖게된다. 극지생활이 일반적으로 단조로운 자연환경에 무미건조하다고 하나, 호기심에 근거를 둔 탐구심만 있다면 무한한 변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계절에 따르는 동식물의 변화, 기상, 바다와 해안의 변화, 얼음과 눈, 기지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활동이 계속 변화하므로, 호기심을 갖고 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려는 관심은 자신의 성공적인 월동생활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월동대 전체에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쁨은 시간이 가도 계속되는 것으로 개인뿐 아니라 월동대원 전체에게도 신선한 기분을 주게 되어 사기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호기심과 관심이 있으면, 단조롭고 무료하게 보이는 월동생활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Fuchs, 1963). 호기심에 근거를 둔 관심은 연구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의사를 포함한 기지인력 쪽에도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무심히 들여다 보는 눈과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눈이나 행동은 다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성격은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 자세로 매사에 참여하게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람은 기지유지라거나 연구 등 월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그의 참여는 대개의 경우, 업무경감 내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매사에 관심을 갖고 월동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절대 필요하다. 실제 극지에서의 생활은 문명세계와 달라, 자기만의 임무가 끝난다고 기지에서의 연구업무나 유지업무가 끝나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로 부터의 단절, 연락의 어려움, 가용 인적·물적 자료의 제한 등으로 기지대원 전부가 같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할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기 본연의 전공이나 직종에는 관계없이 주역으로 활동하거나 도와야 할 일이 자주 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는 성격은 개인적, 이기적 성격보다는, 포용력이 있으며 네 일, 내 일, 궂은 일, 좋은 일을 마다 않고 앞에 나서, 같이하는 적극적인 성격이다.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에 참여 안하면, 그 분야는 일이 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일이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영향이 미쳐, 이 쪽 일도 안 되게 된다. 극지는 작은 사회로서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인 사고와 그에 따르는 헌신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부연할 것은 문명세계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질서가 잡혀 있으나, 극지생활은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즉 그들 나름대로 하나 하나 모든 일에서 질서를 잡고 규정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적극적인 사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요건은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는다는 것은 월동생활에서 봉착할 수 있는 식생활, 생활의 단조로움, 육체적 고통, 제도의 불비, 가정적 어려움, 대원간의 인간적 갈등 등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은 바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말한다. 아무리 연구 및 기지유지 시설과 장비, 생활을 위한 식품공급, 여가선용을 위한 오락시설, 월동생활 제도, 인적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항상 불편하고 마음에 안맞고 모자랄 수 있다. 게다가 이 부족함의 대부분은 기지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때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물적, 심적, 제도적 불편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84).

월동생활에서 바람직한 것은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입는 것, 자는 것, 주위환경, 주변동료, 실내외 생활과 업무에 민감한 경우, 본인은 큰 고생을 하게 된다. 본인은 본인대로 억지로 참고, 맞추느라 고생하고, 자칫하면 주위의 대원들을 자극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극지생활에서는 주어진 여건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기직책에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기술직은 자기만의 기술이다. 따라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마지못해서 자기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면, 본인도 피곤하고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주위의 대원

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생기게 된다. 반대로 긍지를 갖고 일을 하면,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워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연구직도 물론이겠으나, 기술직은 특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란 서로가 맡은 일을 잘 함으로써 유지되고 개인도 명예를 찾고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지, 남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사람보다 더 높아서, 개인의 체면과 자존심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내에서 직분을 찾고 임무를 완수해야지, 머릿속의 체면이나 자존심인 감정이 외적 업무수행을 막으면 안된다.

월동생활은 대원의 숫자가 10여명이라도 공동생활이다. 한마디로 공동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못하는 제한된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아침에 기상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정해진 규정을 따르고 매사에 주위 사람을 의식해야 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생활이다. 월동생활에서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다. 이는 기상, 식사, 근무, 취침, 당직 등 연구와 기지유지 본연의 생활에서부터 음주, 흡연, 식당, 휴게실 등 공동공간 이용, 야외 외출등 대원자신과 기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분명 이들 규정이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의사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자기가 싫고 무리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은 완전히 무시하는, 좋지 못한 성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공동생활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싫고 무리한 규정이라도 지키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좋은 감정이 생기지않을 것이다. 즉 감정이 논리를 앞서면 사태는 더욱 악화만 된다.

이와 관련 시켜서 이야기할 것이 우리 나라 사람은 회의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외무직 중견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상당히 잘 보았다고 믿는다. 이는 우리가 주입식-암기식 교육만을 받았고, 자기의사를 발표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0여명의 월동생활에서는 가능하면 건설적인 자기 의견을 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규정대로, 합의된 대로 잘 되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합의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을 때, 불신만이 생길 수 있다. 건설적인 의견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의견을 내도록 도와 줄 것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이라도 우선은 지키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어 놓을 성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월동생활에 적합하다.

기지유지에는 더럽고 귀찮은 일이 많다. 이런 점에서 남극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한다. 더러운 일 중의 하나가 청소이다. 변소에서부터 기지주변의 청소가 있고, 쓰레기 처리까지 있어서, 직종에 따라서는 문명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업무이다. 청소가 더러운 일이고 자존심에 걸린다 하여도, 이는 월동대가 해야 할 일이다. 무독가연성인 일반쓰레기는 태워야 한다. 캔이나 병은 타는 것이 아니기에 문명세계로 운반해야 하며, 부피를 줄일수 있도록 찌그리거나 깨어야 한다. 이 작업을 못 마땅하게 생각해서 "남극에 쓰레기 치우러 왔느냐"라고 생각해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개인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청소라는 허드렛일을 못 하겠다면, 월동근무를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극에 가고 싶은 욕심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잘 한다고 대답했다가, 기지에서 생활하면서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주위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남극연구연륜이 짧아 기지유지와 월동생활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으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도서관이나 한국해양연구소로 문의해서 관계서적을 읽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극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을 몰랐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다른 월동대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직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월동하려는 사람을 뽑으면 좋겠다. 즉, 극지연구센터가 중심이 된 월동연구원들은 차례가 되어 의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남극이 좋아서 가고 남극에서 무엇인가 할

려는 확고한 계획과 결심이 선 사람이 가면 금상첨화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차례가 되어서 마지못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한 그룹에도 기여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단순히 연구 업무가 문제가 아니고, 기지전체의 월동생활에 큰 부수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점에는 극지연구센터의 현재의 인력이 너무 적다.

대장직은 지금까지는 대개 연구직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못할리가 없다. 실제 외국기지는 의사나 교사, 소방관, 기계공 등의 기술직이 대장을 많이 하고 있다. 대장의 출신보다는 중요한 것이 대장의 균형잡힌 인간성과 성실한 근무자세라 확신한다. 월동대원들은 직종, 소속, 성장배경, 월동목적, 개인적 성격이나 기호, 취미, 능력 등이 다르다. 이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요소는 연구나 기술, 행정등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공정하며, 성공적인 월동을 위한 형식이나 구두선이 아닌 성실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연구직들은 자신이 연구만 하느라 편협된 성격 내지 너무 큰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 행정직들은 제도로 사람을 옭아매는 행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려는 의식만 있으면 대장직 임무수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는다.

대장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대장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협조적 성격의 나이든 대원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무는 기지의 행정연락 업무와 회계업무와 생활물자관리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적지않은 현금을 만지고 대원들과 빈번한 접촉이 있고 물자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가정적, 사회적, 성격적, 그리고 개인의 생활태도에 문제가 없는, 대장이 믿을만한 사람이 바람직하다. 총무의 책임은 대장을 보좌해서 기지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대장의 기지 운영 방침을 따르면서 대원들의 애로나 어려움을 이해하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면 좋겠다.

의료직은,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월동생활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가장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직으로 활동할려는 뜻이 있는 의사는 남극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남는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문명세계의 의사가 상상하지 못한 허드렛 일과 육체적 작업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실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라는 개인의 교육에 따르는 마음가짐때문에 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가 있다. 이는 의사 자신과 다른 대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한민국 남극연구가 계속되면서 세종기지에서 월동한 사람들이 연구소내외로 많아진다. 직책에 따라서는 길게는1년, 짧게는2~3달씩 몇 번이나 기지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의 경험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새로이 월동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나 교육과정에서 월동생활과 그 어려운 실상이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 흔히들 기술직인 경우 세종기지에서는 자신의 틀에박힌 직분 몇가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오나, 실제로는 공동작업을 비롯하여 예상못한 일이 많이 생긴다. 예를들면, 식품, 생활소비재, 연구소모품 등의 물자하역과 정리, 쓰레기, 폐유 등의운반, 선적작업이다. 연료의 하역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있을 것이며, 앞으로 건물과 시설이 낡아가면서 이들의 개축과 보수도 거의 매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남극의 여름인 11월부터 익년 3~4월까지에만 있어, 그때는 눈코 뜰 새 없는 작업의 연속이다. 물론 외부에서 기술자들이 온다고 하나, 작업과 정리의 대부분은 월동대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극의 겨울에 들어가면서는 물이 고갈되고 폭설풍이나 혹한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거리가 생긴다. 배수관이 결빙, 동파된다던가 해수담수화시설이 정지할 수도 있다(급수는 생존의 문제이다). 들이치고 쌓이는 눈 때문에도 실내외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 이때에는 가혹한 자연환경과 물자

부족 때문에 쉽사리 복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면서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월동시에는 이러한 일로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도, 이를 잊어버리고 후배월동대원들에게는 쉽고 즐거웠던 일로 흔히 이야기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텃세로, 마치 힘들었던 군복무생활을 재미있었던 일로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처럼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세종기지에 오게 되는 경우, 개인의 자존심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매사가 힘들고 귀찮게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경험 전수 문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장해서도 안되며, 흥미본위내지는 자기중심이 아닌 반드시 실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야기할 것이, 월동생활은 공동생활이므로 인간관계도 중요하나, 자신의 임무완수가 지상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많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다른 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는 자기 임무를 불성실히 하는데 대한 자기변명이자 심리적 반항이며, 이는 월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의 임무완수는 문명세계에서나 극지에서나 환영받는 제1의 요건이다.

요사이는 군생활의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우리 나라 남자들의 고생스러운 생활이라면 3년 정도의 군복무일 것이다. 군복무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극지생활에서는 군복무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전방 전투부대에서의 고립된 군생활을 사고없이 잘 마친 사람이라면, 그러한 생활을 못해 본 사람들보다는, 극지에서 생활하는 힘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월동생활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요소의 하나가 개인의 지나친 자존심의 발로인 오만이다. 인간의 자존심이란 직종, 연령, 성장배경에 관계없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다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자존심이 지나쳐 오만한 경우,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환영을 못받는다. 그 사람의 오만함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만한 사람은 극히 제한된 사람외에는 어울릴 수 없으며, 그의 출현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보통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존심인 것이다. 극지에서는 주위환경을 무미건조하게 볼 수 있고 생활범위가 제한되어서 문명세계에서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소한 일들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월동생활의 대부분은 하찮은 일과 평범한 생활의 반복이다. 따라서 작은 일에도 자극받을 수 있고 섭섭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규정이나 행위를 시시하다고 여기는 심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을 무시하는 오만한 심리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들어와서 연장자 우대의 의식구조가 무너진다고 하지만 기술직에서는 연령, 즉, 경력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때 연장자가 나이뿐 아니고 실력도 나아야 함은 물론이다. 월동인원이 몇 명 안된다고 하나 고향, 직종, 군복무 등의 인연으로 월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는 무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직무에 따르는 실력과 인간성 위주로 뽑아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천성적으로 자유분방해서, 단조로운 생활을 싫어하고 규정에 얽매이는 공동생활 자체가 싫은 사람과 지나친 자존심의 소유자는 월동생활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술에 취하면 물건을 때려 부순다거나 싸워야 하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격과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성격, 일일이 따지고 덤벼드는 방항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든가 사소한 규정이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월동대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자기일만 하는 사람은 극지생활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 론

세종기지에서의 월동생활이 흔히 남극에 관해 말해지는 환상과 신비만의 세계는 아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반복되는 업무로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환경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위 자연환경변화

와 기지생활에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지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 해결하고, 여러 부족한 것을 참아야 된다.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사소한 규정이라도 지킬수 있고, 타인을 의식해서 양보할 수 있는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인적 요소의 상당부분은 타고 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개인이 스스로의 결점을 의식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의있는 사람이면 월동생활에 무난하고 바람직하다. 남극에 온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소가 지원했다. 대한민국 제 4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연구대 이석원대원은 원고정리에 힘썼다. 위에 언급한 기관과 개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참 고 문 헌

김예동, 1991.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보고서 : 제 2차 월동연구대 (1989.1-1990.1),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418p.

양재삼, 1991.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보고서 : 제 3차 월동연구대 (1990.1-1991.1),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328p.

이방용, 김동호, 김예동, 1990. 남극세종기지의 기상연구 (1988-1989); 한국극지연구, 1(1):47-57.

장순근, 김동엽, 이방용, 정호성, 1990a. 제1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조사대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보고서 BSPE 00160-279-7, 313p.

장순근, 김동엽, 이방용, 정호성, 1990b. 세종기지 주변의 1988/89년 자연환경 : 한국극지연구, 1(1):59-65.

Fuchs, V., 1963. The human element in exploration : British Antarctic Survey Bulletin, 1:1-8.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84. Survival in Antarctica, 101p.